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5.12.(제 11호)

서울시 한부모가족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 지원 정책 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재단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 개선 방안 연구(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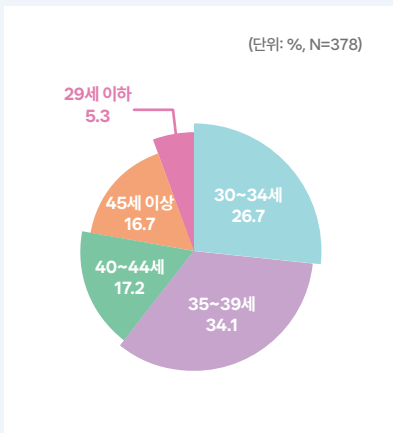
서울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방안 연구(2020)

청소년 한부모 권리보장과 사회적 지지체계 조성방안(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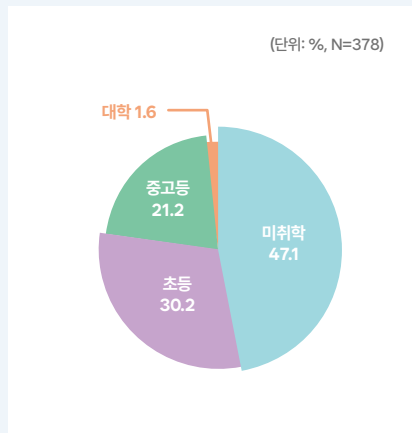
이혼, 사별, 비혼 출산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이 된 이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양상과 초점을 달리한다. 초기에는 주거와 생계 문제가 중심이 되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 교육과 부모-자녀 관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분화된다.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저소득 가구와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 초점을 두어 설계되어, 한부모 당사자와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수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초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이었으나, 소득 변화 등의 사유로 지원에서 제외된 가정은 현행 기준의 지원을 받는 가구보다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소득과 자녀 연령 중심의 지원이 계속해서 정책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호 정책리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 '서울런'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 실태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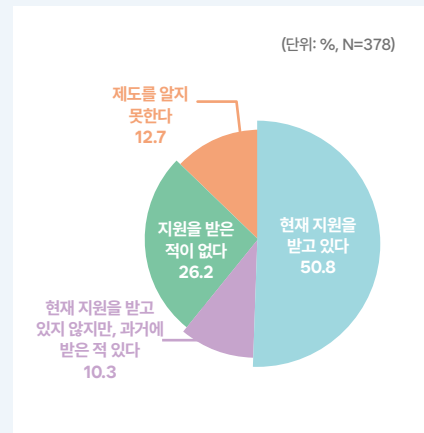
- ▶ 조사 대상: 서울시 거주 한부모 378명
- ▶ 조사 방법 및 기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2025년 5월



[한부모 연령]



[자녀 연령]



[지원 여부]

※ 이선형·정은주(2025),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 생활 실태조사 연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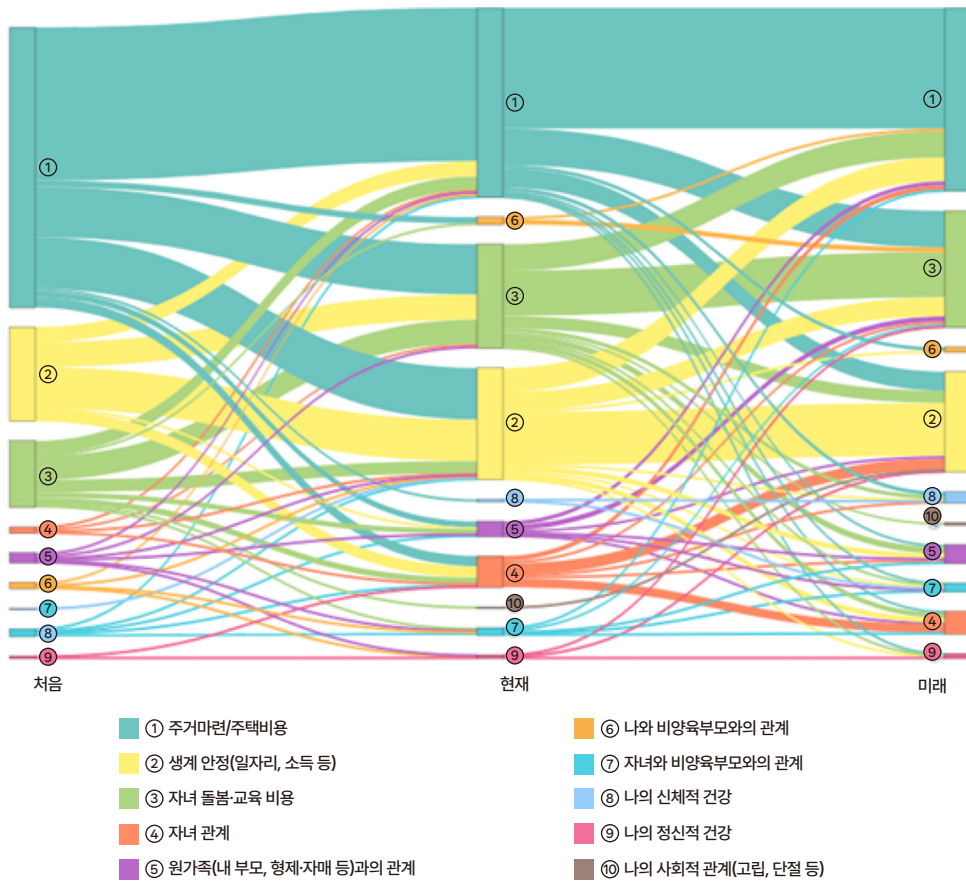
한부모가족의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라 달라지는 어려움의 양상

○ 한부모가 된 이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녀 돌봄·교육 비용, 건강 문제 등으로 변화

- 서울시 한부모에게 한부모가 된 이후 겪는 어려움의 변화를 조사하고, 이를 Sankey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느끼는 어려움의 양상과 비중의 변화를 살펴봄.

※ Sankey 다이어그램은 항목 간의 흐름이나 전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로, 노드(상자)는 상태나 범주를 나타내고, 노드를 연결하는 선의 굵기는 흐름의 양이나 비중을 의미함.¹⁾

- 한부모가 된 직후에는 '주거마련/주택비용', '생계안정(일자리·소득)' 등의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시간이 지나 '현재'에 이르면, 주거 관련 어려움은 '자녀 돌봄·교육 비용', '생계 안정(일자리, 소득 등)', '자녀 관계' 등의 문제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음. '미래'를 전망했을 때는 '자녀 돌봄·교육 비용'과 '자녀 관계', 한부모 본인의 건강 문제 등으로 분화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림 11 한부모가 된 이후 겪는 어려움의 변화(Sankey Diagram)

○ 생애주기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정책

- 이렇게 한부모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어려움의 양상이 달라지지만, 실제 한부모가족 정책에서는 미취학 자녀 양육 중심으로 지원됨.

-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 또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함.

1) <https://sankeymatic.com/>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 저소득가구 중심 지원으로 인한 사각지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선정 기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한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기준이 다소 완화됨.
- 전체 서울시 한부모가족 중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 가구는 2만 4천 998가구로 전체 서울시 한부모 가구의 약 9%임.

표 1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단위: 세대)

| 지원 여부 | 자녀 연령 | 세대 | 비율 |
|-----------|--------|---------|-------|
| 한부모가족 지원 | 18세 이하 | 24,998 | 9.0% |
| 한부모가족 미지원 | 18세 이하 | 19,642 | 7.1% |
| | 19세 이상 | 232,690 | 83.9% |

출처 통계청(2024), 「인구총조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4), 「2023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지원 여부와 자녀 연령에 따른 가구수는 별도의 통계에서 추출하여, 전체 한부모가구 수와 차이가 날 수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중에서도 학령기 자녀 지원은 취약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정책에서 가장 많은 정책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동 양육비 지원임.
 - ※ 2025년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전체 예산 중 85.2%를 차지함(서울시 여성가족실 2025 예산서 기준).
- 아동양육비는 한부모 본인과 자녀의 연령,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임.
 - 만 24세 청소년한부모는 한부모의 학업 및 취업에 필요한 지원이 추가됨(검정고시 등 지원, 자립촉진수당).
- 한부모가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한부모가 월 62.8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초·중·고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만 35세 이상 한부모는 23만 7천 원으로 가장 적은 지원을 받음.

표 2 | 한부모와 자녀 연령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액*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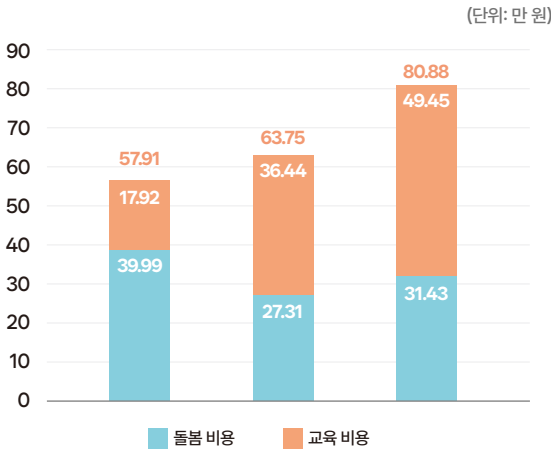
| 한부모 자녀 | 24세 이하 | | 25세~34세 | | 35세 이상 | |
|-----------|--------|-------|----------------|--------|----------------|--------|
| | 0~1세 | 2세 이상 | 미취학 (5세 이하) | 초·중·고 | 미취학 (5세 이하) | 초·중·고 |
| 아동 양육비 | 40 | 37 | 23 | 23 | 23 | 23 |
| 추가 아동 양육비 | | | 10 | 5 | 5 | |
| 아동 교육 지원비 | | | | 0.775 | | 0.775 |
| 검정고시 등 지원 | 12.8 | 12.8 | | | | |
| 자립촉진수당 | 10 | 10 | | | | |
| 합계 | 62.8 | 59.8 | 33 | 28.775 | 28 | 23.775 |

출처 여성가족부(2025),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자녀 1명, 월 지원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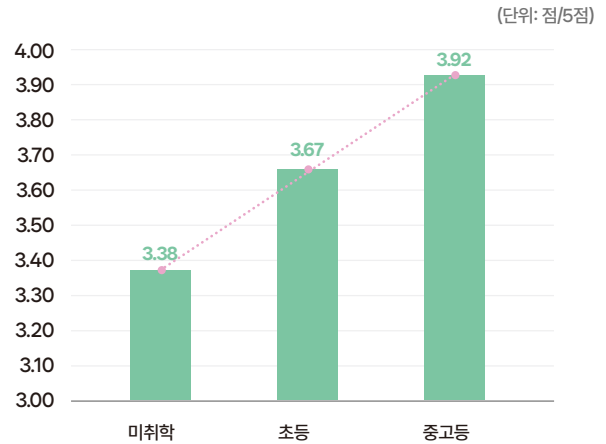
서울시 한부모가족 자녀 연령에 따른 자녀양육 실태와 정책 수요

○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돌봄과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많고, 부담은 커짐

- 서울시 한부모가족이 한 달 평균 돌봄과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 미취학 자녀 57만 9,100원, 초등 학령기 자녀 63만 7,500원, 중고등 학령기 자녀 80만 8,800원으로 나타남.
-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중고등 자녀 양육 한부모가 3.92점으로, 초등 자녀 양육 한부모(3.67점), 미취학 자녀 양육 한부모(3.38점) 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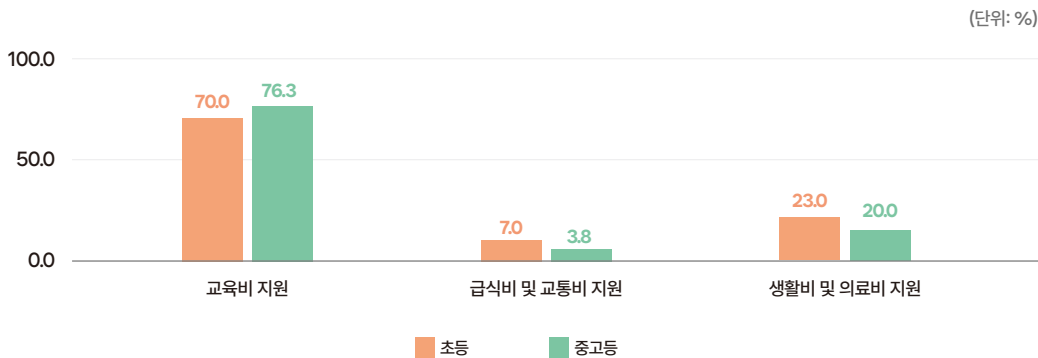
| 그림 2 | 서울시 한부모의 돌봄과 교육 비용



| 그림 3 | 서울시 한부모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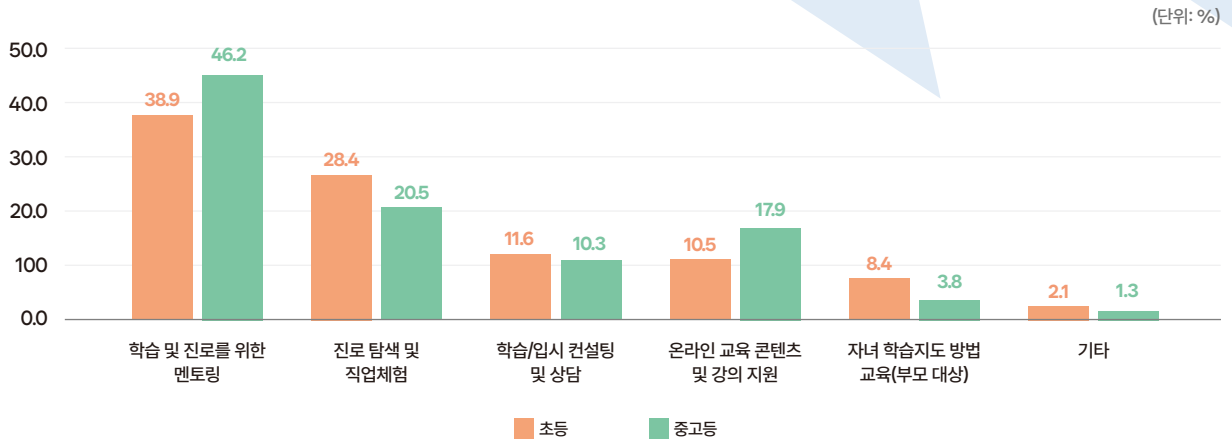
○ 초등, 중고등 학령기 자녀 양육 지원 세부 정책 수요

- 경제적 지원 영역에서는 교육비 지원이 초등 자녀 70.0%, 중고등 자녀 76.3%로 높게 나타나, 한부모가족의 양육지원 정책에서 초등 이후 교육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을 시사함.



| 그림 4 | 초등과 중고등 자녀의 경제적 지원 정책 수요

- 학습 및 진로 지원 영역에서는 ‘학습 및 진로를 위한 멘토링’ 수요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고등 자녀 양육 한부모는 멘토링(46.2%), 온라인 교육 콘텐츠(17.9%) 관련하여 초등보다 수요가 높게 나타나 자녀 연령이 높아질 수록 양육 지원 서비스의 다각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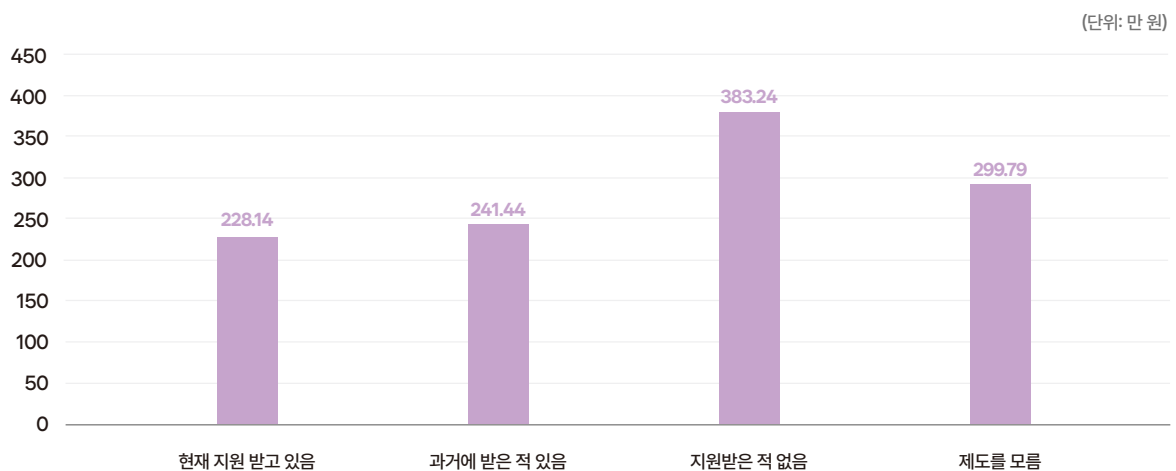


[그림 5] 초등과 중고등 자녀의 학습 및 진로 지원 정책 수요

「한부모가족지원」 제도 이용 경험에 따른 자녀양육 실태

○ 「한부모가족지원」 제도의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 수준은 높지 않음

-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한 한부모가족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 제도 이용 여부에 따라 자녀양육 실태를 분석하였음.
- 「한부모가족지원」 제도 이용 여부에 따라 월 평균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28.14만 원,
 - ‘과거에 받은 적 있음’에 응답한 가구의 소득은 241.44만 원으로 현재 지원 대상 가구보다 13.3만 원 높음.
 - ‘지원받은 적 없음’의 경우 월 소득은 383.24만 원, ‘제도를 모름’으로 응답한 이들은 월 소득이 299.79만 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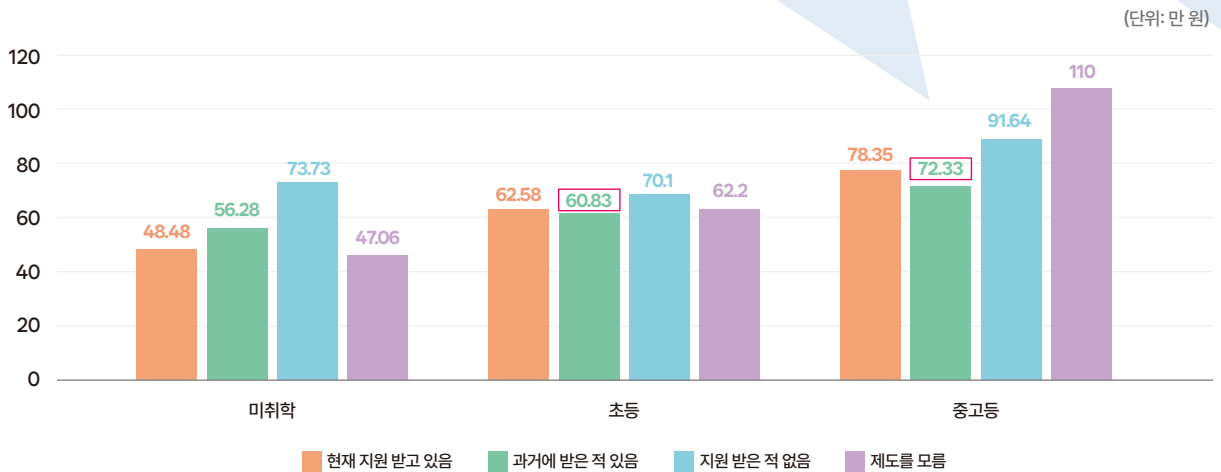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시 한부모가족 월 평균 소득(지원 여부)

○ 과거에 「한부모가족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지원에서 제외된 가족을 사각지대로 주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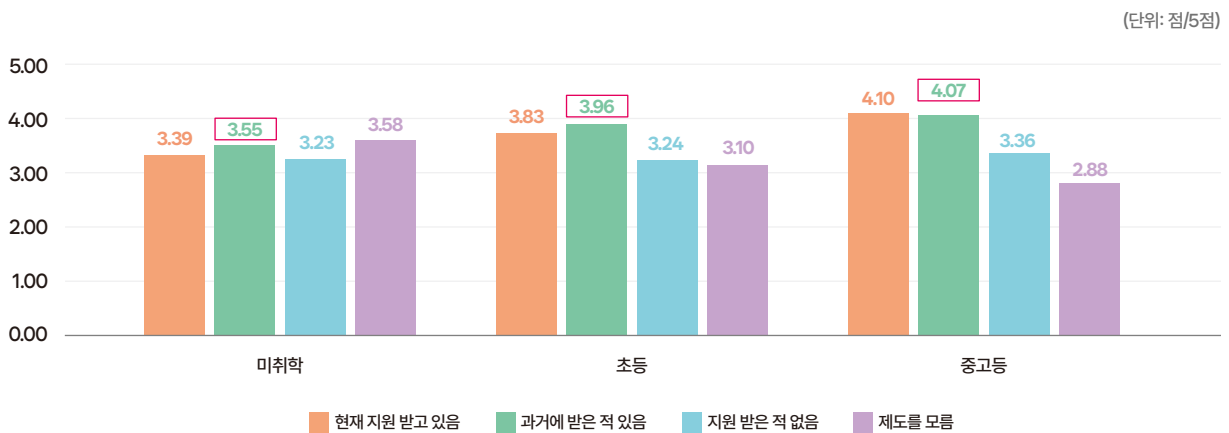
- ‘과거에 받은 적 있음’, 즉 과거에 「한부모가족지원」의 지원 대상이었던 그룹은 초등 학령기 이후 자녀 양육비 지출이 현재 지원받고 있는 그룹보다 적음.

서울시 한부모가족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 지원 정책 과제



[그림 7] 서울시 한부모의 자녀 양육 비용(연령, 지원여부)

- 자녀 양육비용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실제 '과거에 받은 적 있음'에 응답한 한부모의 부담 정도를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그룹과 비교하면, 미취학과 초등 학령기 자녀 양육 가구의 부담이 높게 나타났고, 중고등 학령기 자녀 양육 가구는 0.03점 낮게 나타남.
- 가구 소득 차이는 많지 않지만, 23만 원~28만 원에 이르는 아동 양육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체감하는 부담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 8] 서울시 한부모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연령, 지원여부)

서울시 한부모가족 정책 사각지대 보안을 위한 과제

○ 서울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

-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아동 양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지급할 것을 제안함.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 한부모의 가구 소득을 세후로 조사한 본 연구 결과와 세전 기준으로 제시된 기준중위소득을 세후로 조정하면, 현재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준을 70%까지 완화할 경우 과거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표 3] 서울시 아동양육비 추가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 완화(안)

(단위: 원)

| 기준 중위소득 | | 세후 예상 금액* | 지원 여부 그룹에 따른 포괄 예상** |
|---------|-----------|-----------|------------------------|
| 100% | 3,932,658 | 3,557,028 | 지원받은 적 없는 가구 |
| 90% | 3,539,392 | 3,200,745 | 지원받은 적 없는 가구*** |
| 80% | 3,146,126 | 2,844,462 | 지원받은 적 없는 가구*** |
| 70% | 2,752,861 | 2,488,179 | 과거에 지원받고, 현재는 받지 않는 가구 |
| 63% | 2,477,575 | 2,238,782 | 현재 지원받고 있는 가구 |

*2인 가구 기준, 근로소득으로 상정한 후, 4대 보험 및 세금 제외한 금액임.

**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기준임.

*** '제도를 모름'에 응답한 가구임.

- 현재 아동 양육비 지원은 성평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과 서울시의 매칭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 기준 완화로 인한 추가 소요 예산은 서울시 양성평등가족기금의 확대를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중고등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다각화를 위한 '서울런' 사업 활용**

- 교육 비용 부담 완화와 지원 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런' 사업 활용을 제안함.
 - ※ 서울시는 2021년 8월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런(Seoul Learn)' 플랫폼을 통해 만 6세~24세 이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육 복지 정책인 '서울런'의 주요 대상임. 전체 서울런 회원 중 한부모가 36.4%를 차지함(서울연구원, 2025). 여기서 한부모는 기준중위소득 6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님. 즉 법정 한부모와 소득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 교육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서울런 서비스 지원 대상이 아님. 이에 서울런 이용에 대해서 소득 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한다면 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
 - ※ 서울시는 2025. 10. 14일 '서울런 3.0'을 발표하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여 일부 반영됨.

[표 4] 서울런 사업 보안을 통한 한부모가족 교육 부담 완화 방안(안)

| 구분 | 현재 | 개선 과제 |
|-------|---|---|
| 지원 대상 | (서울런 2.0) 중위소득 60% 이하 및 기타 취약계층 청소년 (다문화가족, 학교밖청소년 등) | ▶ 서울런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 자녀의 경우 소득 기준 완화 또는 별도 모집 필요 (cf. 다문화가족) |

-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학습 역량 이외에 다양한 역량 강화 지원을 추가할 것으로 제안함.
 - 신체적 역량, 인지적 역량, 사회·정서적 역량, 도덕적·시민적 역량, 디지털 및 미래사회 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변화 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한부모가족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 지원 정책 과제

- 이를 위해 사업 추진 방식에서도 역량에 따라서는 일대일 멘토링 이외에 다양한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그룹 동아리 활동 지원: 그룹 활동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역량의 경우 소규모 그룹 지원 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ex. 농구·축구 등 스포츠 팀(신체적 역량), 독서 토론 등(인지적 역량)
- 자기 주도적 청소년 프로젝트 지원: 청소년 창업 및 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기주도 프로젝트 지원 방식이 필요함. ex. 친구 관계 개선 프로젝트(사회·정서적 역량), 기후 위기 대응 프로젝트(미래사회 역량), 게임 개발 프로젝트(디지털 리터러시 등)

표 5 | 한부모가족 자녀 역량 강화를 위한 영역 다각화 제안

| 구분 | 현재 | 개선과제 |
|-------|------------|---|
| 지원 내용 | 학습역량 강화 중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역량(운동 능력, 건강 관리 능력 등) · 인지적 역량(비판적 사고·창의력, 문해력·수리력 등) · 사회·정서적 역량(자기 인식, 자기조절, 공감·관계 형성 등) · 도덕적·시민적 역량(도덕성·책임감, 공동체의식 등) · 디지털 및 미래사회 역량(디지털 리터러시, 문제해결·지속가능성 등) |

연구자: 이선형 책임연구원(정책개발실 여성가족정책팀)